**찬 갑 입론**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찬성)

2007년 본인확인제, 위헌판결(표현의 자유 침해) 그러나 경찰청 통계 사이버범죄 증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주장, 표면적으로는 실명이 노출되지 않음. 책임정신 구현, 최소한의 제어 장치

1. 사이버범죄 예방과 수사에 도움. 2014년 러시아의 사례
2. 표현의 자유는 필요에 따라서 제한되어야 함.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됨
3. 허위 사실 유포 감소\

**반 을 확인질문**

입법목적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이 맞는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이 맞는가?

하루 평균 이용자수에따라 적용되는 인원이 다르고 산출방식이 가변적이여서 통계적 오차가 발생한다 / 동의한다

자기검열의 위헌성 / 인정함 하지만 자정효과 중 일부라고 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가? / 인터넷 실명제의 의도 중 하나이다.

그러면 자기검열을 해야한다고 한건가? / 맞다

**반 갑 입론**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란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

1.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내부고발, 공익제보, 정치 반발),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도 침해 > 헌법에 위반됨
2.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ex. sk, 넥센,..
3. 해외에서는 쓸 수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음 유튜브 등, 통계

**찬 을 확인질문**

유튜브가 실명제를 거부했다는 연도는 2009년이다

가명을 사용하고 서로의 것을 열어보지 못하는 것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 실명을 누군가가 알고있으니까 익명성이 보장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되어야 하는가? / 그것은 아니다 하지만 불법 이용자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37조2항

(반 갑 버벅임)

**찬 병 반론**

21조4항 언론 출판~ 이는 언론사와 그 댓글을 다는 네티즌 또한 법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서는 안됨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대중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서로의 실명을 모른다면 그것은 익명성이 보장된 것이다.

네이버 실명제의 입장에 따르면 정부에서 지정한 본인인증업체와 통신사 이용, 따라서 네이버는 개인정보를 모르고 확인 여부만 알게 됨. 따라서 실명이 사이트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익명성이 보장됨

금융실명제는 당연시 되고 있음. 요새는 보안이 좋다

**반 갑 확인질문**

(타이밍놓침)

해외 서비스는 제한적 실명제는 그 범위가 아님. / 아님 해외사이트도 예시가 있음 자유토론에서 말하겟음 / 해외 서비스를 통제할 수 없음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에 토론과 비판이 있음. 민주적 토론을 위해서는 토론과 비판이 필요함 / 하지만 최근에는 그를 넘어서 비난과 루머유포가 문제가됨 / 그치만 사회적 소수자가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저지함 / 네이버 사례를 보면 충분히 내부고발 등이 가능 /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음

**반 병 반론**

이용자의 정보 보관이 개인정보 유츌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 사용 문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공공아이핀의 부정 발급 문제. 이를 사용한 것은 실명을 인증했다고 볼 수 없음.

휴대전화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인증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중복 가입자를 막는 목적밖에 되지 않음

(말을버벅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용자는 일부이고, 대부분의 이용자를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제한할 순 없음

**찬 갑 확인질문**

(말을왤케)\_

혐오표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어야하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보장해야한다고했는데, 그 대안이 있으면 자유토론에서 말해라

악플러가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를 잡기 위해 다수를 억압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악플러가 소수라는 근거가 있는가? / 2017년 인터넷환경서비스조사 : 전체 이용자의 10퍼센트 정도라는 통계 / 하지만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 악성 댓글 작성자들은 평범한 인터넷 사용자이고, 방통위 통계 등등.. 절대로 악플러가 소수가 아님.

휴대폰 명의 도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토론**

반 갑

익명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저의 인권을 봐야함. 포털사이트의 자정능력 강화와 사이버검찰의 등등 익명성보다 개선이 필요함. 국내기업의 역차별이 발생될 수 있음(유튜브 떡상)

찬 병

국내 실명제 도입으로 해외 사이트로 이동한다? 유튜브가 실명제를 거부한 건 2009년. 법을 적용한다면 충분히 해외사이트까지 법적 제제 가능. 실명제로 인해 발생되는 사이버 망명의 효과가 미미함을 증명하는 논문자료 존재

반 을

해당 해외사이트에서 한국 유저에게만 제제를 가한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

찬 을

실제 네이버가 실시하고 있는 실명제를 사례로, ip제공업체와 통신사의 협력으로 네이버측에서는 개인정보를 알 수 없음. 원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지적한다면 이것은 실명제와는 관련이 없는 얘기이다

반 병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내리지 않으면 정보가 보관되므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는 것

찬 갑

인정하지만 개인정보 보관은 사이버범죄 수사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임

최근에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발달하여 은행에서도 쓰고 있는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을 시용함. 유출 문제를 최소화하면 됨

반 갑

유출 위험이 있는데도 보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출되는 것도 인터넷의 발전 때문에 이루어진것. 디지털 장의사. 해외거주자도 ip추적으로 잡을 수 있음. 관련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찬 을

ip수사가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n번방 사건을 사례로 들면 ip수사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음. 사이버수사대 경찰은 가입자의 상당수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 대조 작업에는 인력이 부족함

대부분의 범죄는 다크웹에서 이루어짐. 같은 ip주소를 사용해 위치 추적을 막음

찬 병

악플 추적 필터링, ai를 이용한 것인데 필터링을 교묘하게 피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일상 언어와 혼용된 언어는 걸러지지 않음, 맥락에 따른 욕설과 욕설이 직접적인 사용이 없는 경우는 거르기 힘듦. 댓글 알바도

반 을

다크웹은 개인정보 보관을 하고 있지 않음 그런 것을 만드는 경우에는 ip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로도 추적하기 힘듦 어차피

**찬 을 반론**

ip수사가 효과적이라고 말하는데, ip추적의 3단계. 앞 단계에서 막힌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실명제를 이용하면 시간, 비용 인력소모 최소화 가능

카톡 오픈채팅이면 아이피추적이 어려움

일반인의 고소는 수사 접수 조차 안되는 경우가 많음

주민등록번호 수사가 더 신속함

**반 을 반론**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함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막지만 악플 근절의 효과가 미미함

악플 방지 효과에 비해 표현의 자유가 대폭 위축됨,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음

익명제를 사용할 경우 댓글알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위축효과로 인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힘듦. 극단적 비난글이 다수로 비춰..뭔얘기지

**찬 병 최종발언**

한 번의 확인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가능

네이버는 지금 주민번호 사용을 하고있지 않음

네이버의 통계상 이용자수는 들쑥날쑥하므로 좋은 근거가 아님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임

**반 병 최종발언**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다른 이용자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시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검열의 위헌성 강조

아이핀도 주민등록번호 기반 시스템이므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위험이 있음

(버벅버벅)

본인인증제도를 거치지 않음(도용의 가능성)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말할 수 없음